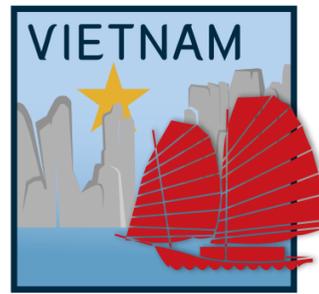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 305호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홍보실
주소 110-793 서울시 중로구 을곡로 75 현대빌딩
대표전화 1577-7755



행복한 소통의 시작, 현대건설 이야기

포스트 시티라이프를 완성하다



Photo News

1966년 캄란만 등 메콩강 하류 준설공사를 수행하며 베트남에 첫발을 내디딘 현대건설은 이후 캄란 신도시 건설공사(1967~1970), 팔라이2 석탄화력발전소(1998~2001), 호찌민 비텍스코 파이낸셜 68층 타워(2008~2011) 등을 시공하며 '파이한 넘버원' 위력을 현지에 전해왔다. '포스트 차이나'라 불릴 정도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은 현재 도시를 중심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현대건설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몽정1 석탄화력 발전소로 부족한 전력난 해소에 일조하는 한편, 베트남 하노이시에 주거 및 상업복합단지인 JW 메리어트 호텔 등을 건립해 시민의 삶에 품격을 더하고 있다.

Hyundai E&C made inroads into Vietnam by carrying out dredging in the downstream areas of the Mekong River including Cam Ranh Bay in 1966. Since that, Hyundai E&C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Cam Ranh new town(1967-1970), Pha Lai 2 coal-fired power plant (1998-2001) and Bitexco Financial Tower in Ho Chi Minh City(2008-2011), leading to enhancing its position as "Korean No. 1" in the country. Recently, a wind of change is blowing mostly through big cities in the rapidly growing country called "post China." Hyundai E&C contributes to solving power shortage by building the Mong Duong 1 coal-fired power plant while adding some class to life of Hanoi citizens by constructing a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 and JW Marriott Hotel.



1 2 3 9 캄배시 몽정1 석탄화력 발전소 6 7 하노이시 주거 및 상업복합단지 5 하노이시 JW 메리어트 호텔 3 4 호찌민시 비텍스코 파이낸셜 68층 타워

현대건설이 쏘아올린 희망의 그린라이트

현대차 공동 베트남 드림센터 착공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현대-프렌즈 특별교실 지원

현대건설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꿈을 응원한다. 일회성 재정지원이 아닌 교육을 통해 미래 역량을 개발하고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현지의 환영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1일 베트남 하노이 공업전문대학에서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코리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현대자동차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박상민 아태본부장, 현대건설 성필경 싱가포르 지사장, 이윤석 베트남 몽정1 석탄화력 발전소 현장소장 외에도 유관 단체 및 현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베트남 드림센터는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가 하노이 공업대학 내 2개 건물을 개보수해 내년 2월 오픈하는 건설 안전학교와 자동차 정비기술학교로, 현대건설은 이곳에 기술교육원과 HSE 혁신실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 및 배관·용접 등 건설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베트남 대학 내에 건설 안전 과정이 운영되는 것은 드림센터가 처음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건설과 자동차라는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이 해외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CSV사업으로, 그룹사 간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슈가다리아주에 위치한 키르쉬 30번 학교에서 '현대-프렌즈 특별교실 편입시설 증정식'이 있었다.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 (사)프렌드아시아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카르쉬 30번 학교의 도서관, 컴퓨터실 등 낙후된 교실의 리모델링에 착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011년 현대차 그룹 편입 이후 해외 중점 수주 지역과 현장을 중심

으로 사회공헌을 펼쳐 현재 13개국 18개소에서 글로벌 기업시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베트남 드림센터처럼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사업은 물론 해외 사업 진출 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CSV(Creating Shared Value)=공유 가치 창출. 먼저 발생한 수익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과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뜻한다.

Hyundai E&C supports hope in Vietnam and Uzbekistan

Hyundai E&C sets out to support the dream of teenagers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Vietnam and Uzbekistan. Such support is well received by the countries in that it is not a one-time financial assistance but helps the youths develop their capabilities and stand on their own feet through education.

Korea's primary builder held a groundbreaking ceremony for HYUNDAI-KOICA Dream Center in Hanoi Industrial Vocational College attended by International NGO Plan Kore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Hyundai Motor Company on October 21.

The Dream Center is the name of a new school which offers construction safety and vehicle maintenance courses. Hyundai E&C and Hyundai Motor Company are working on the renovation of two buildings within the college to open the center in February 2016. The builder will provide training courses for construction safety, piping and welding. This is the first time for a college in the country to operate construction safety programs. As Korea's first creating shared value (CSV) project conducted overseas by two different industries such as construction and auto, the center is highly expected to create synergy effect among the Hyundai Motor Group's affiliates.

In addition, Hyundai E&C held a ceremony named Hyundai-Friends Special Classrooms to offer convenient facilities in a school located in Qarshi of Qashqadaryo region in Uzbekistan. Along with Hyundai Motor Group and Friend Asia, Hyundai E&C has been devoted to improving the learning environment by remodeling the old library and the computer room.

NEWS

- '힐스테이트'의 탁월함을 드높이다
- 2015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 개최
-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2년 연속 선정

그룹사 소식

현대자동차, 미국 진출 29년 만에 1000만 대 판매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26일 미국 자동차 시장 진출 29년 만에 누적 판매 1000만 대 돌파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오랜 기간 고객들로부터 꾸준히 선택받아 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 본고장인 미국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현대차의 우수한 품질과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고객이 원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신차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브랜드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스틸산업, 울촌공장 2만급 플로팅 도크 제작

현대스틸산업 울촌공장이 최근 2만급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진수를 완료했다. 케이스 설치가 가능한 플로팅 도크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시설은 바다 위에서 케이스를 비롯한 해양 구조물을 제작할 뿐만 아니라 운반, 선체 인양 등 다양한 작업도 가능하다. 또한 육상 건조공법을 도입해 공사기간을 2개월 단축했다.



이번에 진수한 플로팅 도크는 이후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 매립공사 현장으로 인도돼 부두 건설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부서 소식

플랜트사업본부, 사업목표 달성 결의를 위한 '호프데이' 열어

플랜트사업본부가 지난달 30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본사와 서울사무소 전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목표 달성 결의를 위한 '호프데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김중호 플랜트사업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사업목표 달성 결의 구호 제창, 행운권 추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플랜트사업본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다 함께 모여 즐거운 식사자리를 나누니 유대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는 것 같다”며 “올해 남은 2개월 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PRM사업부, 그룹사 건설부문 품질워크숍 개최

PRM사업부 품질혁신실이 지난 5일부터 1박2일 동안 충남 서산에 위치한 아산연수원에서 현대차그룹 건설부문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스틸산업, 현대중합설계, 현대로템 품질담당자와 함께 '그룹사 건설품질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내년 건설부문 계열사 공통의 품질 방침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사의 품질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품질혁신실장 민준기 상무보는 “그룹 건설부문 계열사 품질 담당자들이 각 조직 간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힐스테이트'의 탁월함을 드높이다

2015 아주경제 건설대상·아시아투데이 그린건설대상·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우리 회사의 대표 주택 브랜드 '힐스테이트' 현장들이 연이어 수상 소식을 전하며 건설 종가(宗家)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강남 힐스테이트 에코'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2015 아주경제 건설대상' 시상식에서 오피스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강남 힐스테이트 에코'는 세탁기 설치 공간을 욕실 내에 별도로 마련해 편리성과 쾌적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높은 층고를 활용한 수납가구 배치와 기능성 수납시설도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15 아시아투데이 그린건설대상' 시상식에서 '힐스테이트 태전'이 주택부문 대상을 받았다.

'힐스테이트 태전'은 광주시에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단지로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특화 설계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세종 힐스테이트'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세종 힐스테이트'는 원수산 근린공원의 녹지를 단지 내부로 끌어들이 순수녹지율을 45%까지 높였으며, 단지 내외부에 총 1km 이상의 건강산책로



지난달 22일 열린 '2015 아주경제 건설대상' 시상식 후 기념촬영 모습(앞줄 왼쪽에서 넷째가 홍보실장 한성호 상무보).

와 물길을 낸 것이 호응을 얻었다.

건축사업본부 브랜드 담당자는 “힐스테이트 단지들의 잇따른 수상 소식은 우리 회사가 고품격 명품 아파트 구현을

위해 힘쓴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욱 가치있고 다채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탁월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Hillstate proves itself as an exceptional apartment brand

Hillstate, the high-end apartment brand of Hyundai E&C, is solidifying its place as Korea's primary builder by receiving a series of awards.

Gangnam Hillstate Eco has been awarded the grand prize at the Aju Business Daily Construction Awards 2015 held in Plaza Hotel, downtown

Seoul, on October 22 in the category of studio apartment buildings. Gangnam Hillstate Eco is characterized by its high level of convenience and the comfortable environment by separately building a laundry area in a bathroom.

Hillstate Taejeon has received

the grand prize at the Asia Today's Green Construction Awards 2015 held in Seoul City Club in CCMM Building, Yeouido, on October 29 in the category of housing.

The first Hillstate complex in Gwangju-si, Gyeonggi-do, gained high scores in all evaluation categories

such as energy management system and specialized design.

On top of this, Sejong Hillstate has won the excellence award at the Korea Architecture Culture Award 2015 held in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Building on November 5.

2015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 개최

우리 회사가 11일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에서 '2015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를 열었다. 2005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기술컨퍼런스는 최신 기술 동향과 선진 건설기술을 소개하고 우리 회사의 연구 성과와 우수 현장 사례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우리 회사와 그룹사 임직원, 동종사와 학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선진 기관 엔지니어의 특별강연으로 구성된 메인세션과 >인프라 >건축 >에너지, 환경 등 3개 부문의 기술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메인세션에서는 우



리 회사와 사업협력이 논의되고 있는 AECOM社 제임스 테일러 부사장 등 세 명의 초청연사가 원전 해체 및 제염 분야, 스틸 구조물, 그린스마트 빌딩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어 진행된 기술세션에서는 국내외 석

학들의 초청강연과 함께 연구개발본부 리오넬 카론 부장 등 총 17명이 우리 회사와 그룹사의 연구 성과, 우수 시공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GSIC)에 적용된 기술과 사업화 전략 소개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연구개발본부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히 연구 성과와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기술분야 협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자리였다”며 “모든 프로그램이 영어로 진행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2년 연속 선정

우리 회사가 지난 5일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수준을 평가하는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2년 연속 선정됐다. CDP는 비영리단체 명칭으로 전 세계 금융투자기관의 위임을 받아 각국의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슈 대응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집계·발표한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에 이어 탄소 정보 공개점수에서 100점 만점을 획득하고, 기후변화 대응조치 평가 최

상위 레벨인 '밴드 A'를 획득했다. 이로써 우리 회사는 4년 연속 국내 산업재부문 최우수 기업에 해당하는 '탄소경영 섹터 위너스'에 선정됨은 물론, 국내 최우수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2년 연속 편입되는 영예를 안았다.

HSE혁신실 과모원 상무보는 “올해 DJSI에 이은 CDP 1위 선정은 현대건설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



지난 5일 열린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시상식(가운데가 HSE혁신실 과모원 상무보). “앞으로도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우디 젤다 경기장 준공

사우디아라비아 젤다 경기장이 지난달 5일 착공 35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준공됐다. 젤다 경기장은 연면적 2만8590㎡, 실외 경기장 1081석, 4층 규모의 스포츠홀 9366석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우디 서부 젤다 시 북쪽 스포츠시티 내에 위치해 있다.

강태영 현장소장은 “우리 현장은 건축공사로서는 20년 만에 사우디에 재진출한 의미 있는 현장”이라며 “현대건설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사우디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현장을 완공하게 돼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준공 소감을 밝혔다.



사우디 젤다 경기장 전경.

3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 상회'

우리 회사가 국내외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대표 건설사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23일 올해 3분기 연결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4조7114억원, 영업이익 2644억원, 당기순이익 163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매출은 10.6%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14.6%, 20.7%로 크게 증가했다. 1~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13조4701억원, 영업이익은 3.1% 증가한 7194억원, 당기순이익은 1.9% 증가한 4188억원을 기록했다.

우리 회사는 UAE 사브(SARB) 해상 원유 처리 시설 공사, UAE 원전 공사 등 해외 대형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양질의 해외 공사 매출 비중 증가 및 원가 개선 노력 등으로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PHOTO NEWS



화재 발생 대피훈련 시행

우리 회사가 임직원의 비상대응능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지난 5일 서울 계동 본사에서 근무하는 건설 계열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 내용은 >화재 발생을 가정한 실제 대피훈련 >건물 내 고립 시 구조 요청 시연 >소화기 사용법 시연 및 체험교육 등이다.

ISSUE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영어신문 'Korea JoongAng Daily'의 최신 뉴스를 (사보신문)에 연재합니다. 경제·건설·문화 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뉴스를 통해 생생한 비즈니스 이슈 및 영어 표현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사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자체 편집했음을 알립니다.

As autumn leaves fade, silver grass blooms

Nov 07

November is surely not the best time to take a trip. Trees and flowers begin to wither, and the dropping mercury discourages people from packing up and leaving home.

November is also an unlikely time for travel. It is too early to go skiing or snowboarding, and a little late to go see fall foliage or autumn flowers such as chrysanthemums and cosmos.

But silver grass and silver reeds give a good excuse for those with itchy feet to hit the road.

Silver grass and reeds begin to bloom starting in late September, and they reach full bloom when the temperature drops further from late October to mid-November. The colder the temperature is, the more beautiful the plants become.

In addition, silver grass and reeds look different depending on the sunlight. They look creamy white in broad daylight but then turn to gold under the setting sun.

Despite their similarities, silver grass and silver reeds are different plants.

The reeds grow only near water, while silver grass is found on any ter-



rain. The reeds are much taller and have much fluffier flowers than silver grass, too.

Silver grass destinations

Mount Mindung

Mindungsan, or mindung mountain, is a commonly used term to refer to a bare mountain.

In Jeongseon County, Gangwon, however, the term is used as a proper noun.

Mount Mindung once had no trees at all because villagers used to set fires on the mountain to clear land

for farming up until the 1970s. Even a government-led reforestation project did not work to bring back the trees.

Today, the mountain has few trees but is covered with silver grass, which takes root and spreads in barren spaces. And since 1996, Jeongseon County began holding an annual festival dedicated to the grass and planting more.

The most basic hiking course on Mount Mindung starts from Jeongsan Elementary School and ends at Balgudeok. The course takes between two to three hours and is appropriate for

the whole family, for the entire course is quite flat.

Mount Cheongwan

Decades ago, Mount Cheongwan in Jangheung County, South Jeolla, didn't attract many visitors because the mountain had no trees at all.

Winds off the nearby Dado Sea blow too harshly to allow anything to grow on the mountain, and the mountain's rocky terrain is too difficult for ordinary hikers.

But now the mountain has stolen the spotlight with its combination of unique rocks and endless silver grass, which were once considered nuisances.

The panoramic views of the southwestern sea with its many small islets is another draw for those who visit the mountain.



가을 단풍이 진 자리, 억새가 나올거린다

11월이 여행의 적기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나무와 꽃은 시들기 시작하고 기온이 떨어지면 가방을 싸서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수그러들기 마련이다.

11월은 여행과 동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러 가기에는 너무 이르고 떨어지는 낙엽이나 국화, 코스모스 같은 가을꽃을 보러 가기에는 너무 늦은 때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고 싶어 온몸이 근질거리는 당신이라면 억새와 갈대가 좋은 핑계가 되어 줄 것이다.

억새와 갈대는 9월 말 꽃을 피우기 시작해 기온이 떨어지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만개한다. 기온이 낮을수록 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

또한 억새와 갈대는 햇빛에 따라 그 빛깔이 달라진다. 한낮에는 새하얗게 보이지만 해질녘에는 황금색으로 물든다.

억새와 갈대는 비슷한 점이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식물이다.

갈대는 물가에서만 자라지만 억새는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 갈대는 억새에 비해 키가 크고 꽃이 수북이 달린다.

억새 관광지

민둥산

민둥산은 흰빛을 산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다. 하지만 강원도 정선군의 민둥산은 고유명사다.

1970년대까지 민둥산은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산에 불을 놓아 나

무가 한 그루도 없는 산이었다. 정부의 산림녹화 사업도 민둥산에 나무를 되돌려 놓지 못했다. 오늘날 민둥산을 덮고 있는 것은 억새다. 억새는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밀리 퍼져 나간다. 1996년부터 정선군은 억새 축제를 열기 시작해 더 많은 억새를 심었다.

중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발구덕마을에서 끝나는 여정이 가장 기본적인 민둥산 등산 코스다. 약 2~3시간이 소요되는 여정으로, 경사가 완만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산행에도 적합하다.

천관산

전라남도 장흥군에 위치한 천관산은 수십 년 전만 해도 나무가 하나도 없어

관광객들이 찾는 산이 아니었다.

인근 다도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강해 산에 나무가 자랄 수 없어 바위로 된 천관산은 일반 등산객이 오르기엔 너무 힘든 산이다.

하지만 이제 천관산은 기암괴석과 어울려 한때 골칫거리였던 억새밭이 끝없이 펼쳐지면서 장관을 이루게 됐다.

작은 섬들과 남해바다의 전경이 함께 어우러져 천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Key expressions

- with: 시들다, 말라죽다
- mercury: 수은, 수은주
- barren: 척박한, 황량한

Seoulites still working long hours, OECD report shows

Nov 03

Korea remains an economic powerhouse, but its notoriously long working hours have hardly improved.

Korea had the second-longest annual working hours among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members last year after Mexico, according to the OECD on Monday.

Koreans worked 2,124 hours, while Mexicans worked 2,228. Germans worked the shortest hours at 1,371.

The OECD average added up to 1,770, which was 19 hours shorter than the average for Americans. Countries

with shorter working hours than the OECD average included Italy,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The average was decided as the total number of hours actually worked per year divided by the average number of people employed, including part-timers and those self-employed.

Korea is well-known for its long working hours. From 2000 through 2007, the country ranked No. 1 in the category according to OECD statistics. With the exception of 2011, when it slid to third behind Mexico and Greece, Korea has stayed at second



Source: OECD

Average hours worked per person in 2014		
Ranking	Country	Hours
1	Mexico	2,228
2	Korea	2,124
3	Greece	2,042
4	Chile	1,990
OECD average		1,770

place until last year,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working hours.

Koreans worked as long as 2,512 hours back in 2000. The figure has since been on the downward spiral until 2011, when it registered 2,090. But the number has been fluctuating since 2012.

Korea's legally allowed working hours were slashed from 48 hours to 44 hours in 1989. In 2011, the 44 hours were reduced to 40 hours at workplaces with five or more employees. But the huge discrepancy between regulations and reality still lingers,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ersonal Question 유형

Q Have you ever been to Busan?

SAMPLE ANSWER

Of course, I have. I have been to Busan when I was university student.

I went to Busan with my friends by a train. It was rainy that day, but beach was wonderful.

I enjoyed the atmosphere of the sea, people and stores.

I and my friends walked along the beach and enjoyed the night of Busan.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I want to visit there again.

Thank you for listening.

Opinion Question 유형

Q What do you think about sharing room with other people? (A room-mate, for instance)

SAMPLE ANSWER

I think, unless it is uncomfortable, it is needful for students.

People need their own space and it is not good experience to share it with others.

However, youth need to learn about how to live with people in our society.

They have to know there is unavoidable situation in our life and be patient to others.

Therefore, I think it is important to experience sharing room with others for youth.

자료 제공 : SLI 교육원(02-541-7219)

MOVIE

Exorcism film 'The Priests' debuts in first place

Nov 10: Despite the abundance of interesting new releases in Korean theaters, the locally made occult film "The Priests" opened in No. 1 place, drawing 1.4 million moviegoers over the weekend.

It was the fastest film released in November to reach the one million mark.

According to the state-run Korean Film Council on Monday, "The Priests," starring Kim Yun-seok and Gang Dong-won, made 11.5 billion won (\$9.9 million), taking up 61.9 percent of the box office sales between Friday and Sunday.

Tackling the theme of exorcism, which is rare in Korean horror films, "The Priests" follows the life-or-death exorcism ritual conducted by two priests (Kim and Gang) in an attempt to save a teenage girl (Park So-dam) possessed by a demonic spirit.

REPORT

우리 현장 최고 (88) 베트남 몽정1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베트남 몽정 지역에 빛을 선사하다

베트남 최대 규모의 단일 순환유동층 발전소

세계 7대 자연경관 중 하나인 하롱베이(Halong Bay)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동북쪽으로 5시간 거리인 광닌성(Quang Ninh Province) 캄빠시(Cam Pha City) 몽정(Mong Duong Ward) 지역, 이곳에 위치한 몽정1 석탄화력발전소(Two(2)×540MW Mong Duong 1 Thermal Power Plant)는 단일 순환유동층 발전소로 는 베트남 최대 규모다.

우리 회사는 중국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2011년 9월 베트남 전력청(EVN)과 EPC 형식으로 14.7억(세금 제외 12.9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 공사는 베트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국책 프로젝트로, 공사비의 40%는 한국수출입은행(KEXIM)이, 나머지 60%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조달을 맡았다.



1 1호기 보일러, 전기집진기(ESP) 전경. 2 보일러 4대, 스택터빈 2대, 전기집진기 4대, 연돌 2대를 포함한 1, 2호기 Power Block.

우리 현장은 270MW급 보일러 4대와 540MW 스택터빈발전기 2대 등 총 108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99.7%로, 지난 9월 21일 1호기의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연말까지 남은 2호기의 공사에 매진할 계획이다. 향후 준공과 함께 이곳에선 베트남 북부 지역의 510만 여 주민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65억 kWh의 전기가 생산될 전망이다.

베트남의 무연탄은 열량이 낮아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미분탄(Pulverized Coal-PC)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우리 회사는 열량이 낮은 저열량 무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면서도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순환유동층 보일러를 현장에 적용했다. 순환유동층 보일러는 공기와 석회석을 동시에 주입시켜 순환 연소 시공으로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이는 친환경 발전설비다. 베트남 현지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우리 현장에 대한 기대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시련을 넘어 성공적인 준공을 향해

현장 초기엔 많은 어려움이 산재했다. 발주처가 직접 공사한 부지는 주변의 바위 등을 활용한 마구잡이식 퇴매우기(back filling)로 조성돼 토양 구성이 불량했다. 이 때문에 초기 토목공사 수행 시 파일(Pile) 정착 시험을 연속 실패하는 등 공기가 2개월 가량 지연됐지만 현장은 24시간 돌관작업을 통해 지연 공기를 만회했다.

날씨도 변수 중 하나였다. 6~9월 우기의 베트남은 항상 높은 습도와 잦은 태풍, 강우로 인해 상당 기간 공사 수행이 어렵다. 특히 공사 피크 시점이었던 2013, 2014년에는 비정상적으로 우천 일수가 많아 작업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이하 전 사원으로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이는 친환경 발전소를 지킬 수 있었다.

또한 현장은 베트남 현지 업체와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을 다해 2015년 2월 10일까지 무재해 2282만 5643시간을 달성했다.

현재 현장에는 빌딩 6층 높이인 220m에 이르는 연돌과 무연탄 12일치를 저장할 수 있는 저탄장, 보일러, 터빈 건물 등 각종 시설물이 우뚝 서 있다. 베트남 최대 규모의 순환유동층 발전소를 짓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딛고 현장 전 임직원은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발전소 프로젝트를 EPC 단기로 수행한다는 자부심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회사의 도전은 국내 기자재 업체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해 국내 업체들의 외화 가득몰이 약 35%에 이르는 등 국내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장은 성공적인 준공을 향해 순조롭게 비정상적으로 우천 일수가 많아 작업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이하 전 사원으로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이는 친환경 발전소 프로젝트를 추가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 박성용 차장

Hyundai E&C lights Mong Duong in Vietnam

The country's single largest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power plant

Mong Duong Ward in Cam Pha City, Quang Ninh Province, is located one hour away from Ha Long Bay, one of seven wonders of nature, and about five hours away from and northeast of Hanoi, the national capital of Vietnam. Here is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Mong Duong 1 Thermal Power Plant project which is the country's single biggest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CFBC) thermal power plant.

After neck-to-neck competition with Chinese competitors, Hyundai E&C signed a 1.47-billion-dollar EPC contract with Vietnam Electricity (EVN) in September 2011 and started construction in December the same year. As part of the national project fully supported by the Vietnamese govern-

ment to resolve the country's chronic problem with lack of supply of electricity, the Mong Duong project is funded by Korea Exim-bank (40 percent)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60 percent).

Our company has been working on building a coal-fired power plant with a total capacity of 1,080 MW including four units of 270 MW boilers and two units of 540 MW STG. Currently, 99.7 percent of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Our company already finished the construction of Mong Duong Power Plant Unit 1 on September 21 this year and will be devoted to building Unit 2 by the end of this yea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would ensure the production of 6.5 billion kWh of electricity that about 5.1 million residents living in the northern part of Vietnam can use for a year.

In Vietnam, the heating value of anthracite coal is too low to be utilized in pulverized coal (PC) boilers mainly used for coal-fired power plants. Against this backdrop, our company introduced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boilers to the Mong Duong Power Plant project by using anthracite coal with a lower heating value and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at the same time.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boilers are considered eco-friendly facilities that can significantly cut back on emissions of pollutants such as nitrogen oxides and sulfur oxides by injecting air and limestone into furnaces simultaneously and combusting the fuel in a circular manner. As interest in environmental issues is growing fast in Vietnam, our construction site is attracting more attention

and expectations.

Toward successful completion

A series of failures in the static pile load test in the early stage of construction work led to two months of delay. However, the around-the-clock acceleration work successfully caught up with the delay. Weather was another obstacl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During June to September, Vietnam usually faces a high humidity, frequent typhoons and heavy rain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carry out construction work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lthough we had an unusually high number of rainy days at the peak of the construction in 2013 and 2014, all staff members and project manager worked day and night, ending up with meeting a deadline.

Hyundai E&C is the only one Korean engineering company which conducts a large-scale project to build a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power plant in Vietnam on an EPC turnkey basis. Based on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roject, we will forge a closer relationship with our clients. Further, we are expecting to win more deals to construct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power plants in Vietnam and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rich in coal with a lower heating value.

Currently, a 220-meter flue gas stack and coal sheds which can store anthracite coal used for up to 12 days stand high in the construction site. Proud of brining the Korean Wave in Vietnamese construction sector, our all staff members will strive to complete the project in a successful way.



단일 순환유동층 발전소로는 베트남 최대 규모인 몽정1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현대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완성되고 있는 이곳은 현재 공정률 99.7%로,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MINI Interview



몽정1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임직원 일동

“베트남에 건설 한류를 불러일으키겠습니다”

만성적인 전력 공급난에 시달리는 베트남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국책사업인 이 프로젝트는 단일 순환유동층 발전소로는 베트남 최대 규모입니다. 순환유동층 보일러는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이는 친환경 발전설비로, 베트남 현지에서도 우리 현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현장 초기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장은 5개월간 주야로 24시간 토목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우기에는 지속적인 돌관작업과 추가 인원을 투입하는 등 현대건설의 추진력과 특화된 공기를 준수해왔습니다. 현장은 지난해 9월 착공한 지 45개월여 만에 1호기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데 이어 현재 2호기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소장님 이하 현장 전 직원들은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대형 순환유동층 발전소를 EPC 단기로 수행한다는 자부심과 베트남 내 현대건설을 널리 알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오늘도 쉼 없이 공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대건설이 베트남에 제2, 제3의 몽정 발전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베트남 현지 외국인 직원 Mr. Ta Tuan Dung

“I believe that the greatest capability of Hyundai E&C lies in project management”

I'm Ta Tuan Dung with 18 years experience in construction and project management. I have worked for Hyundai E&C since August 2012 as a project control engineer in the Project Control Department of Mong Duong 1 Project in Vietnam. I received the Excellent Staff Award in 2013 and 2014 and was chosen as the Selected Foreign Staff in 2015.

I felt the most proud as a Hyundai E&C employee when I visited Hyundai E&C's head office and Hyundai Motor Company's factory in 2015 as part of the Global Talent Program. In a meeting, CEO Jung Soo-hyun said that although we came from different nationalities, we are all members of Hyundai E&C. His speech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closing the distance among all staff of Hyundai E&C.

I believe that the greatest capability of Hyundai E&C lies in project management systems such as sustainable management, ethical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safety & environment manage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Personally I aim to become an excellent project control engineer armed with remarkable project management skills and to build a good relationship with my colleague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yundai E&C's business in the future.



CULTURE

남쪽으로 길게 뻗은 베트남은 뚜렷한 기후 차이만큼이나 저마다의 매력으로 가득 차 있다. 중국과 인도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경험한 탓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글=임영현



세계 7대 절경, 하롱베이



호이안



호찌민 노트르담 성당



미선 참파 왕국 유적

다채로운 볼거리와 매력을 뽐내는 베트남

격동의 시기를 딛고 세계로 성장하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해 있다. 한반도의 약 1.5배에 이르는 국토는 남북으로 긴 S자형으로 뻗어 있어 북-중·남부의 기후 차이가 뚜렷하고, 326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따라 주요 도시가 형성돼 있다.

베트남 최초 부족 국가는 홍브엉에 의해 기원전 2879년 건국된 반랑국이다. 베트남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중국과 인도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 한자와 유교, 불교문화가 곳곳에 남아 있는가 하면 힌두교를 믿으며 해상 교역을 통해 번영을 이뤘던 참파 왕국의 유적도 존재한다.

중국의 지배와 독립을 반복해 온 베트남 전역이 통일된 것은 1802년. 당시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응우옌 왕조가 세워졌으나 프랑스의 식민정책 강화에 따라 1887년 캄보디아, 라오스와 함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 편입되는 시련을 겪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달던 1945년 3월에는 일본에 점령되기도 했다. 패전한 일본이 철수한 뒤 베트남은 그해 8월 혁명을 통해 마침내 독립국가가 됐다. 이어 인도차이나 전쟁과 남북 분단, 베트남전까지 격동의 시기를 겪은 후 1975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탄생했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베트남인들은 이렇듯 오랜 세월 외부 침입 세력을 물리치고 독립을 이룬 데 대한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하다. 특히 올해는 베트남전 종전 40주년인데, 베트남인들은 베트남전이라 칭하지 않고, 미국의 정권에 대항한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부른다.

수도 하노이와 최대 경제도시 호찌민에서

는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의 행렬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베트남의 역동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듯하다. 나이키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의 주력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어 머지않아 '세계의 공장' 중국을 제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호찌민·하노이·다낭... 백인백색의 도시 베트남은 지역마다 색다른 특색을 간직하고 있어 많은 외국 관광객이 찾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의 누적 방문자 수는 633만8600명으로, 이 중 한국인이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크게 북부와 중부, 남부로 나눌 수 있다. 하노이와 하롱베이, 하이퐁 등의 도시가 들어선 북부는 유서 깊은 역사와 천혜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지역이다. 1000년 이상 베트남의 수도 역할을 해 온 하노이는 국경도시 호찌민의 묘와 공자를 모신 문묘, 호찌민 박물관, 하노이 최대의 재래시장인 동수안 시장, 호안끼엠 호수 등 볼거리가 즐비하다. 특히 하노이에서 수상 인형극은 반드시 봐야 할 공연으로 꼽힌다. 농민들이 비농사를 끝내고划艇이 놀이가 수상 인형극으로 발전했다.

호안끼엠 호수 북단, 응옥선 사당 근처에 탕롱 수상 인형극장이 있다. 하이퐁 인근 하롱베이는 세계 7대 절경 중 하나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하롱베이는 영화 <인도차이나>와 <굿바이 베트남>의 배경이 됐던 곳으로,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3000여 개의 기암절벽이 펼쳐져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 이들과 함께 우리 회사가 건설한 262m의 비테스코 파이낸셜 타워는 베트남 경제를 주도하는 상업도시, 호찌민의 현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로 자리매김했다. 호찌민 근교의 꾸찌터널은 베트남전의 상흔을 느낄 수 있는 필수 여행코스다. 꼽힌다. 호찌민 위로는 모래언덕이 사막을 연상케 하는 무디엔, 베트남 최대의 해변 휴양지 나짱 그리고 해발 1500m에 있어 언중 선선하면서 베트남 현지인의 히니룬은 보석이 섬들이 됐다고 한다. 크루즈에서 1박

을 하는 코스를 선택하면 여유롭게 하롱베이를 즐길 수 있다. 베트남 소수민족인 몽족이 살고 있는 썬파는 해발 1650m의 산악지대로, 다랑논이 가득한 계곡을 걸으며 마을을 방문해 보는 트레킹을 추천한다.

중부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3곳이 모여 있다. 마을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즈넉한 호이안, 참파 왕국의 힌두 사원이 남아 있는 미선, 베트남 최후의 왕조인 응우옌 왕조의 도읍지였던 후에 등을 여행하다 보면 편안한 휴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부 최대의 도시 다낭은 이들 지역에 비해 관광객이 별로 없지만 최근 고급 리조트 개발이 이어지면서 휴양을 위한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남부는 베트남의 활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자 메콩강의 풍요로움과 이국적인 해변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지역이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수도였던 호찌민은 '동양의 파리'라고도 불린다. 노트르담 성당, 에펠탑을 건설한 구스타브 에펠이 설계한 중앙우체국, 인민위원회 청사 등 프랑스식 건축 양식을 한 건물들이 시내 곳곳에 남아 있다. 이들과 함께 우리 회사가 건설한 262m의 비테스코 파이낸셜 타워는 베트남 경제를 주도하는 상업도시, 호찌민의 현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로 자리매김했다. 호찌민 근교의 꾸찌터널은 베트남전의 상흔을 느낄 수 있는 필수 여행코스다. 꼽힌다. 호찌민 위로는 모래언덕이 사막을 연상케 하는 무디엔, 베트남 최대의 해변 휴양지 나짱 그리고 해발 1500m에 있어 언중 선선하면서 베트남 현지인의 히니룬은 보석이 섬들이 됐다고 한다. 크루즈에서 1박

천혜의 자연 속 품격 높은 휴식

현대 송자아 골프리조트

송자아 골프리조트는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102km 떨어진 베트남 제1의 양만도시인 아이영에 위치해 있다. 자연장과 목장이 만나는 천혜의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현대 송자아 골프리조트는 100만2751.5㎡(약 30만 평) 면적에 골프 시설과 숙박 시설, 편의 시설을 갖춰 레저, 휴양, 숙박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송자아 골프클럽
〈송자아 골프 클럽〉은 총 27홀의 다양한 테마별 골프 코스를 갖추고 있다.

- ① River Course 아름다운 호수와 아치수, 자연의 멋진 경관이 펼쳐져 플레이어의 품격을 높인다. 9개의 홀마다 워터 해저드(Water Hazard)를 끼고 있다.
- ② Ocean Course 목장을 타고 돌아오는 시원한 바람을 즐기는 코스. 감바람에 공이 어디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감 넘치는 골프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우리 회사가 2012년 2월부터 운영 중인 현대 송자아 골프리조트는 골프 전문 디자이너의 탁월한 안목이 느껴진다. 코스마다 벨란도의 난이도를 조절해 플레이어의 즐거움을 극대화했다.

호텔·서비스도 레저도
송자아 골프리조트에는 60개 객실을 갖춘 5성급 〈호텔 송자아 스위트〉가 들어서 있다. 지중해풍의 인테리어 콘셉트가 돋보이는 이곳은 지천 몸을 편하게 애 줄 것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도 레저도 <드래곤 빌리지>의 총 78개 객실에서는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송자아 골프리조트 인근의 하롱베이와 엔트코원, 캣바섬 그리고 하이퐁 시내 투어는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에 특별한 가치를 더할 것이다.

이용 문의 www.hyundaisonggia.com
070-8280-2540

FOCUS

지난 10월 11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이 2015-2016 NH농협 V리그라는 6개월여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우승'이라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회사 배구단 선수들에게 필승 기도를 들어봤다. 글·박현희

2015~2016 NH농협 V리그 우승을 향해 뛰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우리고 사실로 이기고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이 2015~2016 NH농협 V리그 1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승기를 잡고 있다. 우리 회사 배구단은 지난 2015 청주-KOVO컵 프로배구대회 IBK기업은행과의 결승전에서 2-3으로 역전패해 아쉽게 준우승했다. 준우승의 쓴맛은 이번 정규시즌 우승에 대한 열망을 더욱 달궜다.

최근 진행된 2015~2016시즌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에서 양철호 감독은 "이번 시즌에는 공격수의 역량을 키워 좀 더 빠르고 박진감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수들의 호흡만 잘 맞았다면 올 시즌 목표는 단연히 우승"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토틸 배구로 전술 체인지!

이번 시즌 여자부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외국인 선수 영입 방식이다. 지난 시즌까지 자유계약으로 외국인 선수를 선발했던 여자 배구는 국내 선수 육성과 구단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시즌부터 트라이아웃(공개선발제)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여자 배구의 승패를 좌우했던 배구 강국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은 트라이아웃에서 제외됐다. 대신 전미 대학 체육협회(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에 등록된 졸업예정자 혹은 3년 미만의 선수가 드래프트를 통해 뽑혔다.

공격 점유율 50%를 웃돌며 경기를 이끌어갔던 외국인 공격수가 사라지면서 이번 시즌에는 국내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우리 회사 배구단은 용병에 의존하던 이렇다 할 '물방 배구(외국인 선수에게 공을 몰아줘 공격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벗

어나 빠르고 다양한 공격 패턴과 탄탄한 수비력을 내세운 '토틸 배구'로 전술을 바꿨다. 양철호 감독은 선수들에게 특정 선수 중심의 배구보다는 모든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도록 지시했다. 또 서브 리시브가 탄탄한 에밀리 하트 선수 영입해 공격과 수비에서 내실을 다졌다.

모두가 도와야 이긴다!

양철호 감독의 '토틸 배구'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1라운드에서 외국인 선수의 공격 성공률은 지난 시즌 45.74%에서 36.07%로 크게 줄었다. 그 탓에 오픈공격과 후위공격 성공률도 10%로 떨어졌지만, 대신 시간차공격과 퀵오픈의 성공률이 15% 이상 올랐다. 황연주·양효진 선수도 이러한 전술에 만족하고 있다. 황연주 선수는 "평소 점수를 잘 내던 코스와 다른 스타일로 연습했

다. 상황에 맞게 판단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공이 났을 때 확실하게 점수를 따내기 위해 여러 코스를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양효진 선수 역시 "세트 열매선과 '애매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 공격 타이밍을 맞췄다. 이제 팀의 모든 선수가 공격을 책임져야 한다. 수비, 2단 연결 등 서로 도와야 팀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회사 배구단은 리시브 라인을 보강하고, 공격수를 고르게 배분하면서 우승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공격 점유율도 '삼각판대'인 황연주·양효진·에밀리 선수가 각각 22.2%·22.3%·34.5%로 안정적인 편이다. 김세영·김연진·정미선·연정민·이다영 선수 등도 잘해주고 있다. 리베로 김연진, 레프트 정미선은 코트 후방을 지키며 탄탄한 수비 실력을 뽐냈다. 세트 열매선과 이다영은 번갈아 코트를 밟으며 팀 분위기를 살렸다. 센터

김세영은 활력 불로킹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선수들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각오다.

정상에 우뚝 서기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경기에서 지켜받은 터차와 서브 범실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 공격을 책임질 '주포'가 없기에 모든 선수 책임감과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 시즌 초반인 데다 풀세트 접전이 크게 늘어나 부상 관리와 체력 조절도 관건이다. V리그가 시작된 지 한 달 남짓, 위닝업은 끝났다. 시즌 1라운드를 1위로 끊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경기를 펼치기를, 그리고 우승이라는 정상에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회사 배구단 선수들과 응원하는 팬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우승! 마지막에 진정으로 웃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그녀들을 응원할 때다.

MINI Interview



소통의 리더십 양철호 감독 ‘토틸 배구’로 V리그 우승 노린다!

V리그라는 긴 항해가 시작됐다. 선장은 난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양철호 감독, 선수와 선수 선수와 스텝 간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주전-비주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선수의 몸 상태를 꼼꼼히 챙겨 '소통의 리더'라는 별칭까지 붙은 양 감독과의 미니 인터뷰.

- Q 올해 외국인 선수 에밀리 하트와 박정민·이예림·김선희라는 신인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어떤 역량을 갖춘 선수들인가요?
A 에밀리는 수비력이 훌륭한 외국인 선수로
- Q 올해 외국인 선수 에밀리 하트와 박정민·이예림·김선희라는 신인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어떤 역량을 갖춘 선수들인가요?
A 에밀리는 수비력이 훌륭한 외국인 선수로
- Q 지금까지의 경기로 볼 때 V리그 우승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서 힐스테이트 배구단의 공격을 더욱 극대화해 줄 선수로 판단했기에 선발했습니다. 신인 3명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향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을 이끌어갈 선수들 수비력과 조직력을 기반으로 코트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수 투입으로 상대 약점을 계속 파고들 계획입니다. 올 시즌을 위해 많이 준비한 만큼 우승으로 보답할 테니 뜨거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탁월한 수비와 리시브 능력 가진 에밀리 하트 선수 “코트에서 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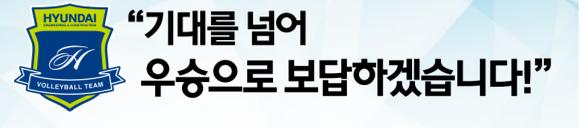


미국 화와이애드를 졸업한 후 스위스 볼레로 취리히(Voleo Zurich) 소속 선수로 활동한 에밀리 하트 선수는 탄탄한 수비와 탁월한 리시브 능력으로 우리 회사 배구단의 새로운 외국인 용병이 됐다. 186cm로 배구 선수로는 큰 신장이 아니지만 경기에서 빠르고 센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팀과 잘 융화되는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우리 회사 배구단과 에밀리 선수의 호흡은 가히 좋다고 평가받았다. "저는 우리 팀이 정말 좋아요. 완벽하게 대화할 수는 없지만 신기하게도 코트 안에서는 의사소통이 잘 되거든요. 선수들도 먼저 다가가 웃어주고, 가끔 실수할 때에도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줘요. 덕분에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웃음)."

호흡이 잘 맞아떨어질까. 에밀리 선수의 블로킹 실력과 강한 공격력은 팀의 승리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저와 팀원들 모두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코트 내에서 모든 기량을 발휘해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책임감도 커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피할 수 없지만 강인한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임직원 여러분도 지켜봐 주세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선수 7인



“기대를 넘어 우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힐스테이트 배구단 선수들은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잘 싸워주고 있다. 이번 시즌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 선수 7인의 열정 그리고 각오에 대해 들어봤다.

센터 양효진 선수
"우리 팀은 워낙이 좋아요. 풀세트 접전이 잦지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절히 바라던 이뤄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팀이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센터 김세영 선수
"우리 팀은 지난 시즌보다 모든 면에서 나아졌어요. 리시브부터 공격까지 두루 발전했죠. 저는 팀의 만안(이만) 후배들에게 조언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저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 뿐입니다.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레프트 한유미 선수
"시즌 첫 경기 때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인 경기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목표가 없어요. 오직 팀 우승 하나만 생각하고 있죠. 경기마다 절실한 마음으로 꼭 승리를 거머쥐겠습니다!"

라이트 황연주 선수
"이번 시즌을 위해 재활훈련이나 치료에 신경을 많이 썼고, 범심을 줄이려고 매일 같은 훈련을 반복했어요. 덕분에 조직력과 체력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모든 선수에게 최종 목표는 우승일 겁니다. 프로에서 경향이 많은 만큼, 최고의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터 염혜선 선수
"이 운동 아니면 할 게 없는데 생각으로 힘든 훈련을 이겨냈어요.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마다 감독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저뿐 아니라 모두가 우승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보겠습니다!"

리베로 김연진 선수
"지난해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수비와 리시브를 집중적으로 훈련했어요.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근본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시즌이 끝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팀플레이를 하면서 이기는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레프트 정미선 선수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쌓여 팀 분위기가 밝아졌는데, 이런 점이 경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는 수비형 공격수로 그동안 리시브와 수비 훈련을 많이 했어요. 제가 받아내는 공이 세트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파이팅!"



MARKET

최근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베트남 건설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10월 말 기준) 국내 건설사가 베트남에서 수주한 공사는 41억 달러 규모. 베트남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세 번째 수주 시장으로 부상한 것이다. 글=신삼섭 실장(해외건설협회 지역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시내 전경.

건설칼럼 17 베트남 아시아 최대 블루칩 건설시장 Post-China 베트남의 새로운 飛上

베트남이 다시 비상(飛上)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7.1% 성장을 지속해 온 베트남은 2013년 5.4% 성장을 기록하며 주춤하는 듯했으나 지난해 5.9%, 올해 상반기 6.2%로 성장률을 회복하면서 다시 날개를 펴고 있다. 베트남 건설시장의 중요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년간 누계 수주액 기준 국내 건설사의 제4위 건설수주 시장으로 자리매김해 온 베트남은 올해 10월 말까지 41억 달러의 수주액으로 제3위 수주 시장으로 올라섰다. 더욱이 지난 10월 미국, 호주, 일본 등 세계 주요 12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하고, 올해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는 등 경제 도약의 모멘텀을 맞고 있어 '블루칩 건설시장' 베트남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 건설사의 베트남 수주액 단위: 억 달러



국부 호찌민의 통치이념은 안정적 정국 운영의 뿌리

베트남은 국부(國父)로 숭상받는 호찌민의 통치이념인 권력 분점과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따라 진보와 개혁이 조화된 집단지도체제로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 내에 일부 진보 간 갈등이 존재하지만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하노이, 호찌민 등 외자유치 집중 지역의 소득수준이 월등히 높아 지역 및 계층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나 농촌개발, 빈곤 퇴치 정책으로 불만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2016년 국가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는데, 순조로운 세대교체가 예상되고 있어 정국 및 사회 안정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Post-China로 역동적인 경제성장 지속

1980년대 중반까지 전통적인 농업국가였던 베트남은 1986년 '도이 마이(Doi Moi·쇄신)'라는 대외 개방·개혁 노선을 채택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 경제로 탈바꿈했다. 인구 9100만 명, 세계 14위 인구대국 베트남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7.1%의 고도성장을 이뤘다. 특히 매년 200억 달러 이상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베트남 총투자의 23%, 총수출의 68%를 차지해 베트남 경제발전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력이 풍부하고 우수하며, 인건비가 낮은 데다 사회주의 영향으로 국민의 기본교육이 잘돼 있어 세계 우수 기업의 생산기지로서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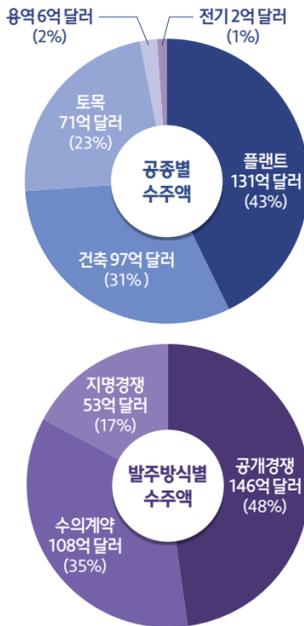
베트남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쌀, 커피 등의 풍부한 식량자원을 갖고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원유도 45억 배럴이 매장돼 있어 원유 수출만으로도 연간 8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산업은 섬유산업이다. 섬유산업은 베트남 제조업 총생산의 10%와 총수출의 15%를 차지하며 273만 명의 노동자가 고용돼 있다. 휴대전화기는 최대 수출품목으로 2014년 263억 달러를 수출했고, 제3위 수출산업인 신발산업은 2014년 수출액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각각 70억 달러 규모의 응이선 정유공장 및 농선 정유공장과 함께 태국 국영석유회사가 투자하는 278억 달러 규모의 정유공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철강부문도 45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이 추진되는 등 중화학산업 육성이 본격화되고 있어 산업 고도화와 다각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내 건설사의 진출 동향과 전망

국내 건설사는 1965년 라지아 항만항타 공사(87.6억 달러)로 베트남에 최초 진출한 후 2015년 10월 말까지 베트남에서 1010건의 공사, 총 307억 달러를 수주했다. 이는 국내 건



설사가 진출한 세계 149개 국가 중 수주액 순위로 7위를 차지한다. 베트남 건설시장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아시아 1위, 세계 4위의 중요한 시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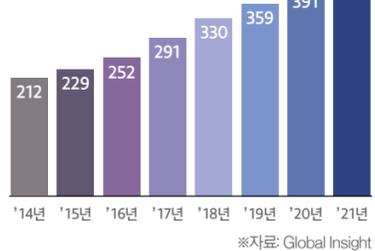
공중별 수주액은 플랜트 131억 달러, 건축 97억 달러, 토목 71억 달러 등이다. 우리 기업이 참여한 공사의 발주 형태에 따른 수주액은 공개경쟁입찰 146억 달러, 수의계약 108억 달러, 지명경쟁 53억 달러 등이다.

현재 국내 건설사는 총 165억 달러 규모의 54개 프로젝트를 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NSRP 정유공장 공사(21억 달러), 응이선 2 석탄화력발전소(16.5억 달러),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15억 달러) 건설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120억 달러를 지원키로 한 호찌민~나짱 준고속철, 호찌민~하노이 도시철도 프로젝트 등의 공사 추진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발주 예정 프로젝트 규모

2014년 현재 약 212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건설시장은 앞으로 연평균 14%씩 성장해 2021년에는 2014년의 2배인 4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건설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베트남 정부는 만성적인 전력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600억 달러를 투자해 설비 용량을 2015년의 2배인 8만6000MW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원전도 2030년까지 약 14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고속도로는 2020년까지 512억 달러를 투입해 총연장 2380km의 24개를 건설하며 일반도로는 '2020 도로교통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총연장 2000km 이상의 도로 개선 및 확충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는 신규 노선 건설과 기존 선로의 현대화 사업에 2020년까지 전체 국가 투자의 10% 이상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항만 인프라 분야에 2020년까지 230억 달러를 투자하며 항공 분야는 국제공항 10개, 국내선 공항 10개를 확충할 예정이다.

진출 시 유의할 점

국내 건설사가 베트남 진출을 고려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에서는 BOT(Built Operate Transfer) 같은 투자개발 방식의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성을 보장할 수요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전기료, 통행료 등 시설사용료를 공공기관에서 엄격 관리하고 있어 프로젝트의 육성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

발주처에서 특정 현지 업체를 컨소시엄 또는 하도급사로 활용토록 강요해 계약금액 및 과업범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셋째, 베트남은 세계부패인식지수 119위로 부정부패, 관료주의의 비효율이 심하며 인허가 발급 지연 사례가 많다.

넷째, 건설한 재무구조를 갖춘 현지 협력업체 확보가 어렵고, 현지 업체와의 마찰과 분규가 빈번해 우수 협력업체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법규의 세부 시행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변경이 잦고 공무원의 재량권이 커 행정기관과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여섯째, 사업 부지 취득 시 현지인의 권리보호가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므로 이해관계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권력이 당서시장, 국가주식, 총리에게 분산돼 있고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대형 프로젝트 추진 시 다양한 기관과 폭넓은 유대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건설사의 베트남 진출 SWOT 분석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수준의 기술력과 풍부한 시공 경험 • 사업기획, 공기, 품질, 원가 등 우수한 사업관리 능력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금융 조달 능력 취약 • 발주처 및 인허가 기관 네트워크 취약 • 현지 우수 협력업체 확보가 어려움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P 체결 확정 및 AEC 출범 예정으로 경제도약 모멘텀 • 한국 정부의 120억 달러 규모 금융 지원을 재원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수주 유망 • 우리 건설사의 적극성, 기술, 경험에 대한 높은 평가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적극적인 대규모 차관 공세 • 정부 재정적 제약으로 시공자 금융조달 및 주선 요구 증가 • 불안한 부정부패와 관료주의의 비효율 (세계부패인식지수 119위)

COLUMN

생각의 좌표

소시지 먹어도 되나요?

음식만큼 속설과 공포가 많은 것도 드물다.

워낙 민감한 데다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하는 빈곤의 시대에서 골라 먹어야 하는 풍요의 시대로 변했기 때문이리라.

특히 설탕과 고기 중 누가 더 다이어트에 해로운지에 대한 논란은 인류가 생존하는 한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을 국제암연 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붉은 고기도 그보다는 약하지만 2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국제암연 구소가 권위나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다 보니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우리 아이가 햄이나 소시지를 먹어도 되느냐”는 독자들의 문의도 늘었다. ‘과학 상식이 풍부한’ 동료들조차 며칠 동안은 햄이 많이 들어간 부대찌개를 피했다. 뭐, 과학자도 사람이다.

웃었다 울었다, 고기의 눈물

그리고 보니 올해는 고기가 반전 드라마 많이 펼친 한 해였다. 가장 큰 이슈는 콜레스테롤이었다. 미국 식생활지침 자문위원회(DGAC)는 올해 초 콜레스테롤에 대해 사면령을 내렸다. 그 전만 해도 콜레스테롤은 피해야 할 대표적인 물질이었다. 다이어트도 문제지만 계란이나 새우 등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올라가 동맥경화 등 심장질환에 걸리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공포는 1960~70년대부터 생겨났는데, 오랜 연구 끝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계란을 많이 먹는다 해도 건강한 성인이라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고혈압 환자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다 찬바람이 불기 무섭게 ‘발암물질’이라는 편지를 맞은 것이다.

이런 반전 드라마는 음식의 숙명인지도 모르겠다. 인공감미료로 불리는 사카린이 대표적이다. 설탕보다 300배나

달면서도 몸속에서 소화되지 않아(칼로리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이어트 만세!) 한때 사카린은 ‘기적의 감미료’로 불렸다. 그러나 1970년대 수컷 쥐에게 방광암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사카린은 시장에서 퇴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계속된 연구 결과 이상한 점이 나타났다. 수컷 쥐 외에는 먹었다고 방광암에 걸렸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결국 수컷 쥐에 있는 특이한 단백질 때문에 사카린이 방광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사람을 포함해 다른 동물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졌다. 세계 곳곳에서 사카린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사카린을 빵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했다.

지중해 식단은 절대선일까

음식만큼 속설과 공포가 많은 것도 드물다. 워낙 민감한 데다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하는 빈곤의 시대에서 골라 먹어야 하는 풍요의 시대로 변했기 때문이리라. 특히 설탕과 고기 중 누가 더 다이어트에 해로운지에 대한 논란은 인류가 생존하는 한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요즘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의 범람 덕분에 설탕에 대한 경계가 높고 있는 추세지만 이번 붉은 고기에 대한 뉴스처럼 언제 어디서 역풍이 펼쳐질지 모른다.

매운맛을 내는 물질도 늘 극단을 오간다. 워낙 식도에 좋지 않다는 얘기부터 바이러스에 강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까지, 도대체 한쪽 말만 듣다 보면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소금도 마찬가지다. 몇 년 전부터 소금이 고혈압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니 천일염은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천일염이 진짜 우리 음식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좋다는 음식도 마찬가지다. 와인이 좋다, 지중해식 식단이 몸에 좋다, 일본 전통 음식이 장수에 좋다 등 몸에 좋은 음식은 쌓이고 쌓여 있다. 슈퍼푸드 10종 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여 놓는 사람도 많다. 기자 역시 슈퍼푸드 몇 가지는 먹을 때마다 ‘내 몸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좋다는 대로만 먹으면 무병장수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지중해식 식단을 마구 먹는다면 과잉 양이 될 게 분명하다. 몸에 좋다는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많이 먹는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음식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공포 역시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기자가 들었던 수많은 조언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미국 UC버클리대 교수인 마이클 폴란의 말이었다. “다양한 음식을 먹어라, 과식하지는 말아라,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라.” 어떤 음식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다. 더불어 운동이나 활동을 적게 하는 게 문제다. 우리 몸에 진짜 해로운 것은 특정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다.



김상현 동아시아연구소 과학전문기자

현건의의 창 가을 독서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

(사보신문)에서는 지난 8월 선정된 현대건설 사내 필진의 에세이를 격호로 연재합니다. 사내 필진이 전하는 글을 통해 감성의 창을 열고 편안한 마음 산책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 이른바 ‘센티’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마음 한편에 쉽게 풀어놓지 못한 아련한 추억 한두 개가 이따금이면 기억력이란 때론 몸쓸 권능을 타고 스펀지처럼 올라와 마치 콩나물을 타고 올라온 책이 거인나라에서 분탕을 치듯이 머릿속을 점령하곤 합니다. 덕분에 영 탐탁지 않은 옛 기억까지 되살아나기도 하죠.

세계문학전집의 추억

가을은 비스킷 기온과 기후임에도 뭔가 희망차고 미래지향적인 불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깊은 침착함을 무기로 냉정하게 과거를 돌아보아야 하는 시기처럼 여겨지고, 이것이 독서라는 조금 외롭고 고독한 취미와 어우러지며 ‘독서의 계절’이란 별칭까지 붙었죠. 지금이야 공부와 독서를 분리해 생각하지만, 저나 제 앞선 세대에는 ‘책 좀 봐라’라는 말은 곧 ‘공부 좀 해라’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변듯한 도서관 하나 없고 나오는 책의 종류도 적어 읽을거리조차 변변치 않던 유년 시절. 손때 묻은 세계문학전집을 다 읽고 나면 몇 번이고 또 반복해 읽었고, 놀러간 친구 집에서 새로운 책이라도 눈에 띄면 읽고 싶어 안달이 나기도 했습니다.

겨울방학 즈음에 새로운 교과서를 받으면 학교 앞 문방구에서 투명비닐을 사거나 다 쓴 달력으로 꼼꼼히 둘러싸던 기억도 있습니다. 새하얀-불과 몇 달 후에는 온갖 낙서로 너털해질- 교과서에 흠집이라도 잡힐까 싶어 살그머니 열어보던 설렘은 추억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집에는 도서 영업사원의 끈질긴 작업으로 들여놓았을법한 수십 권

몇몇 화젯거리에 대해 나름 잔재하며 혼수를 넣다가 요행히 들어맞기라도 하면 ‘잡학다식’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조금은 민망한 치켜세움을 들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이라는 괴물이 생기고 나서는 바로바로 검색해 보는 후배들 앞에서 혹여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까봐 이제는 쉽게 말도 못 꺼내겠으니 고민입니다.

세트의 위인전이나 백과사전이 손도 타지 않은 채 놓여 있곤 했습니다(시골에는 벼 수매를 끝내고 목돈이 쥐어진 때 ‘전축’이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곤 했습니다). 밖에서 친구들과 와글거리며 뛰노는 것도 좋아했지만 ‘테레비’에서도 알려주지 않던 이계(異界)의 이야기를 좋아했던 저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아무도 들춰보지 않았을 법한 전집류를 읽는 조금은 ‘요상한’ 어린이였습니다.

가나다순 인명사전의 앞부분에 나오는 미국의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한 ‘연관주의자’가 무슨 뜻인지 몰라 십수 년을 전전긍긍하다가 대학에 가서야 궁금증을 풀었던 일화는 소싯적 미팅 때 써먹어 지적인 이미지를 내는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퀴리부인 전기를 몇 번이고 읽은 탓에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무지막지한 교과서 지문 -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 “네.” “스타니슬라스 오거스투스 포니아 토푸스키는 -” - 을 아직도 외우고 있는 것은 지금도 술자리에서 유용한 장기이기도 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영웅문』으로 시작된 홍공의 문호 ‘김용’의 소설에 빠져 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에 수학문제 대신 무협지만 읽던 죄책감이 있었으나 최근 알리바바그룹의 마윈 회장이 그의 작품에 찬사를 보내 자연스레 면죄부를 ‘득템’하기도 했습니다.

뇌를 위한 독서보다는 감성을 채우는 독서를

올가을에도 예전의 야성적인 독서 습관까지는 못 되더라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잠시 떨어져 보고자 책장을 펴지만, 이내 몇

장 못 넘기고 다음을 기약하고 맙니다. 예전 같으면 사자마자 밤을 새워서라도 마지막 장을 덮고야 말았던 스티븐 킹이나 마이클 크라이튼(최근 유교적인 『해적의 시대』가 출간됨)의 소설마저도 달포가 지나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어 내심 스스로에게 참회하기까지 합니다.

어릴 적 이것저것 읽어낸 총기로 국물 우려먹듯 이야기하다 보니 몇몇 화젯거리에 대해 나름 잔재하며 혼수를 넣다가 요행히 들 어맞기라도 하면 ‘잡학다식’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조금은 민망한 치켜세움을 들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이라는 괴물이 생기고 나서는 바로바로 검색해 보는 후배들 앞에서 혹여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까 봐 이

제는 쉽게 말도 못 꺼내겠으니 고민입니다.

요즘처럼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는 시대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낳기 위한 독서보다는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를 정돈하기 위한 책 읽기의 마음가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점 한편에 별로 찾지 않아 손때가 덜 탄 작은 시집이라도 사서, 사람들이 덜 오가는 벤치에서 한가로이 시인의 마음을 헤아려 볼 여유를 부려도 될 듯한 가을, 독서에 관한 다양한 편리를 늘어놓아 보았습니다.

여철기 차장 [사내 필진 1기] 싱가포르 태국점 매립공사 2단계 공사



깊어가는 가을, 풍성한 책소식

11월의 읽을 만한 책				
분야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발행일
문학·예술	언어로 세운 집	이여령	아르테	2015.9.10
	클래식 범정	조병선	뮤진트리	2015.8.13
인문학	역사와 어원으로 찾아가는 우리 땅 이야기	최재용	21세기북스	2015.9.24
	자기 결정	페터 비에리/문향심	은행나무	2015.9.21
사회과학	제프리 무어의 캐즘 마케팅	제프리 A. 무어/윤영호	세종서적	2015.8.28
자연과학	과학, 인문으로 탐구하다	박민아, 선유정, 정원	한국문화사	2015.9.3
실용·일반	도쿄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주는 쓴소리	이토 모토시게/전선영	갤리온	2015.7.3
유아·아동	뭘? 나랑 너랑 닮았다고!?	고미 타로/김수희	미래아이	2015.9.15
	짜꾸 할매 손녀가 왔다	신지영 글, 정문주 그림	한겨레아이들	2015.8.31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www.kcipa.or.kr)



PEOPLE

‘음악은 만국 공통어’라는 말이 있다. 현대차그룹 건설부문 계열사 전 직원이 참여한 ‘숨은스타를 찾아라 시즌2’ 역시 그러한 의도에서 기획됐다. 직급, 소속(회사), 국적이 달라도 음악 그리고 현대차그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다. 글=박현희/사진=송성훈



음악으로 소통했던 18일간의 '축제' 이야기

‘더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기획된 ‘숨은스타를 찾아라 시즌2’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된 이번 이벤트에는 보컬·드럼·기타·피아노·장구 등 다채로운 분야의 총 45개 팀이 참여했다.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참여 대상을 현대자동차그룹 건설부문 계열사 전 직원으로 넓혔다는 것. 각 계열사의 본사, 국내·해외 현장 직원이 조화롭게 참여해 소통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후문이다.

심사는 10월 2~8일까지 그룹웨어 팝업과 게시판을 통해 진행됐다. 팝업과 게시판에 참가자들의 동영상과 공개되면 현대차그룹 건설부문 계열사 전 직원이 1~5점까지 점수를 주는 방식, 심사 열기도 뜨거웠다. 총 1만 4032표가 집계된 가운데 본상 5개 팀, H스타상 2개 팀, 특별상 2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망의 대상과 최우수상은 현대엔지니어링(이하 ‘HEC’) 강철우 부장(전력전기설계팀)과 현대건설 장세림 사원(자산운영개발팀)이 받았다. 우수상은 현대건설 이대형 사원(신한을 원자력 1·2호기)·김중수 대리(베네수엘라 라크루즈 정유공장)와 HEC 이서희 사원(이라크 Karbala 프로젝트), 인기상인 H스타상은 현대건설 권혜민 사원(부동산투자개발팀)과 HEC 최재훈(화공안전환경설계팀)·윤형진 대리(화공프로세스설계팀)에게 돌아갔다.

〈사보신문〉에서는 현대차그룹 건설부문 계열사의 심사로 뽑힌 수상자들을 만났다.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수상자들의 면면은 각양각색이었지만, 음악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열정은 하나였다.

음악 열정, 다시 꽃피우다!

Q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강철우 부장 저는 HEC 색소폰동호회 ‘현색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퇴근 후 연습실에서 툼툼이 연습해 왔는데, 제 연주에 대한 호응이 어떤지 궁금해 응모하게 됐습니다.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서희 사원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즐겨 노래방에 자주 갔어요. 어머니께서 “노래방에 가서 돈만 쓰지 말고 휴지라도 받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이벤트 공고를 보게 됐죠. 바쁜 중에도 노래방에서 응모곡을 함께 골라준 후배들에게 고맙고, 저에게 투표해 주신 분들께도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라크 Karbala Project 서울사무소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셔서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권혜민 사원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 참가했는데, ‘H스타’라는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복면가왕〉처럼 가수 흥진

영씨의 가면을 뒤집어쓰고 노래하려고 했는데,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얼굴을 공개하게 됐어요. 유튜브에 올라간 제 영상이 조회수 1700건을 기록했다고 하던데 신기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웃음).

장세림 사원 예고 입시까지 준비했을 정도로 피아노 연주에 애착이 있었는데, 최우수상까지 받게 돼 기쁩니다. 평소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제 재능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어 참가했는데, 참가 사실을 몰랐던 팀원들도 놀라며 축하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김중수 대리 이벤트 공지를 본 순간 ‘이번 건 드시 참가해야 한다,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에 고민 없이 응모했어요. 사실 제가 응모했던 영상은 8분짜리였는데, 한 번에 녹음하느라 진을 뺐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는 이벤트를 기획해 준 회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Q 곡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나요? 동료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장세림 사원 이벤트 참가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어요. 활영을 도와준 동기 몇몇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내 TV에 제 연주가 나왔을 때 팀원들이 더 놀라워했던 것 같아요. 나름 서프라이즈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웃음). 곡은 사람들이 들어봤을지언, 테크닉을 뽐낼 수 있는 것으로 선정했어요. 그 결과 소풍의 ‘흑간’을 연주하게 됐죠.

강철우 부장 현색회 회원들이 격려와 지원을 많이 해줬고, 동료들도 응원해 줬습니다. 저는 참가곡으로 케니 G가 연주한 ‘My heart will go on’과 ‘Loving you’ 2곡 중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 평소 좋아하고 지인들 결혼식에서 자주 연주했던 ‘Loving you’를 택했는데, 잘 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웃음).

권혜민 사원 회식 때 어른들이 좋아하는 트

로트를 자주 불렀어요. 덕분에 ‘권진영’이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가수 흥진영의 노래 중 가장 인기곡인 ‘사랑의 배터리’를 열창하게 됐어요.

김중수 대리 저 역시 조용히 참가했어요. 장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헤비메탈로 정했고, 록 음악을 잘 듣지 않는 사람도 좋아할 만한 곡을 찾다 메탈리카 ‘Orion’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이서희 사원 다들 격무로 바쁘신데 혼자 이벤트에 참가한다고 들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심사 기간이 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용한 발라드 노래로 출전하려고 했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고음 파트가 확실하게 두드러진 곡을 불러야겠다고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적합했죠.

Q 경품은 어떻게 쓸 계획인가요?

강철우 부장 가족들과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권혜민 사원 제가 ‘숨은스타를 찾아라’에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분들과 용기 내어 참가한 저를 위해 쓰고 싶어요(웃음).

김중수 대리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 바지와 구두를 살 예정입니다.

장세림 사원 저 역시 백화점에서 셔츠와 구두 등을 쇼핑하며 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요(웃음).

이서희 사원 어머니의 권유로 참가했던 거라 효도 차원에서 전액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특히 좋아해 주셨고, 저 또한 회사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것 같습니다.

Zoom in

이번 ‘숨은스타를 찾아라 시즌2’는 현대차그룹 건설부문 계열사가 함께해 더욱 신나는 이벤트였다. 그중 눈에 띄는 열정으로 〈사보신문〉 레이더망에 걸린 우리 회사 직원들을 소개한다.

특별상
ABDALLA HASSAN 사원_도하지사

“수단의 전통음악을 알리고 싶어 출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직원 여러분! 저는 다른 국가 사람들에게 수단의 전통음악을 들려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한국의 우리 직원들에게도 알리고 싶어 출전했습니다. 기대도 안했는데,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돼 놀랐고 기쁘요. 이번 이벤트로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졌고, 더욱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과 후 개인 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재능을 개발하는 여러분 모두를 도하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얼리버드상
한경식 사원_플랜트설계지원실

“다음 시즌엔 우승하고 싶어요~”



“평소 모창을 좋아해 JTBC 〈히트싱어〉에도 응모했는데, 아쉽게 최종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숨은스타를 찾아라’에 참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얼리버드상에 그쳤지만 다음 시즌에는 본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래방에서 경품으로 받은 맥주를 마시며 열심히 연습할 테니 다음 시즌도 기대해 주세요.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차그룹 건설부문 계열사가 함께하는 ‘숨은스타를 찾아라 파이팅!’”

Q 마지막으로, 현대차그룹 건설부문 계열사 전 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

강철우 부장 퇴근 후 가족 또는 동료들과 함께 가까운 음악 공연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박수치고, 열렬히 환호하다 보면 삶의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웃음).

김중수 대리 우리 회사 주최로 이런 이벤트가 열려 더욱 뿌듯했고, 좋았습니다. 역명의 댓글로 소통했던 것도 좋았고요. 다음 시즌에는 더욱 다양한 계열사가 참여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서희 사원 올해 처음으로 건설계열사 전 직원이 함께한 이벤트가 진행됐다고 들어요. 시즌3, 시즌4 등 계속적으로 개최돼 현대차그룹의 전통 있는 이벤트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세림 사원 우리 회사가 글로벌한 만큼 다음 시즌에는 본사와 국내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이 다양한 악기로 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혜민 사원 ‘회사에 재능 많은 분이 이렇게나 많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다음 시즌에는 더욱 많은 ‘숨은스타’들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숨은스타 여러분, 당신이 ‘짱’입니다!~”



지난 10월 26일에 열린 시상식에는 현대건설 경영지원본부 백경기 부사장과 홍보실 한성호 상무부, 현대엔지니어링 박찬우 상무,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백 부사장은 “일과 삶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숨은스타를 찾아라’가 현대차그룹 직원들의 힐링 축제가 되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TOGETHER

늦가을의 절정인 지난 4일, 연구개발본부 에너지환경연구개발실 유창속 사원이 이화여대를 찾았다. 우리 회사 직원이 모교를 방문해 재학 중인 후배들에게 한턱 쏠 기회를 제공하는 소통 이벤트 '선배가 쓴다'에 참여하기 위해 환경공학과 후배 대학생 4명을 만난 것. 유 사원과 후배 대학생들의 만남은 노랑게 몰든 교정만큼이나 설행으로 가득했다. 글=김승희 / 사진=송성훈

선배가 쓴다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편

선후배 5인방의 달콤한 데이트 “주도적 리더십! ‘여대’ 출신만의 강점이죠”

깊어가는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외국인들. 그 사이로 모교 후배들을 만나기 위해 잔걸음으로 교정에 들어서는 연구개발본부 유창속 사원의 모습이 보인다. 연구개발본부에서 지하철로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선배가 쓴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것. 유 사원은 소녀같이 밝고 유쾌한 매력을 뽐내는 후배 대학생 4인방과 만나 반갑게 대화를 이어 나가며 대학생 시절의 추억에 잠겼다. 그녀들과의 시간 속으로 Go Go!



단풍이 노랗게 물든 이화여대 교정에서 최현빈, 유창속 사원, 원아현, 차유림, 박소휘(왼쪽부터).



후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창속 사원 졸업하고 학교에 올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이화사랑 김밥’이라고 학교 안에 있는 유명한 카페에 남편이랑 데이트할 겸 온 게 벌써 2년 전이네요. 오랜만에 학교에 와보니 우리 학교 교정이 이렇게 예뻐나 생각될 정도로 윤치있고 멋있어요(웃음).

최현빈 선배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이 되니 외국 관광객까지 많이들 찾아오네요. 저는 4학년생으로 오 늘 모인 3학년 동생들에 비해 취업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선배님의 깨알 취업 팁을 듣고 싶어요.

차유림 졸업한 선배를 만날 기회가 대학원생 조교밖에 없어요. 취업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선배님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설행 따름입니다(웃음).

유창속 사원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웃음). 저는 여러분 같은 후배들을 만나 회사를 알리고 싶어 올 초에 응모했어요.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대건설에 입사한 지 벌써 3년차인데 직원으로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더 뿌듯한 것 같아요. 저는 현대건설에 대한 이미지가 입사하기 전과 후로 참 많이 달라져서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건설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제가 다니는 회사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박소휘 보수적인 이미지? 남자가 많은 회사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선배가 쓴다’라는 이벤트로 회사에서 선배와 후배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게 획기적이고 신기해요. 제가 생각하는 현대건설 이미지랑 사투 달라서요(웃음).

원아현 맞아요. 이렇게 취업한 선배를 가까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기업은 현대건설이 처음이에요.

‘공대’ 원대한 꿈을 품고 입학했죠

유창속 사원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 과학만 잘해서 자연스럽게 공대에 진학해 엔지니어가 되는 꿈을 꾸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공대에 어떻게 진학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박소휘 저도 과학을 좋아했어요. 또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자연대보다 응용하고, 직접 실험도 할 수 있는 공대가 좋아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전공 공부를 해보니 너무 힘들어서 ‘생각처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절망도 했죠(웃음).

최현빈 저는 수학, 과학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기오염, 미세먼지, 수질오염 등 남들이 관심 없는 분야를 좋아했죠. 그래서 환경이나 에너지를 연구하는 엔지니어가 돼서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환경공학과나 에너지공학과 입학을 생각했는데 마침 이대에 환경공학과가 있어서 ‘딱이다’ 싶었죠.

유창속 사원 우리 학교 구조가 있었는데 벌써 가을가물하네요. 뭐였죠?

차유림 ‘해방이화, 열혈공대, 푸른환경’요.

유창속 사원 다시 들으니 새롭고, 신입생 때 그 구조를 내내 외치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가 몇 년 전인지(웃음).

주도적 성향은 ‘여대’ 학생들의 장점, 선후배간 끈끈한 정 더 필요해요

유창속 사원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4년 동안 자립심과 독립심을 많이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학생들만 있는 곳이라 남자들에게 일을 미루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 주제도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제가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와서 사람들은 남성 위주의 회사에 적응하기 힘들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길러진 장점들 덕에 우리 학교 출신들이 현대건설에 입사하면 적응도 더 잘하고 인정받는 것 같아요. 여대 출신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주도적인 리더십, 자립심, 독립심 등이 제가 회사 생활을 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차유림 맞아요. 선배님 말씀처럼 우리 학교는 남자가 없으니가 실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여대라서 안 꾸미고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웃음).

유창속 사원 안 꾸미고 다니는 건 단점 아닌가요(웃음)? 학생들의 불타는 학구열도 우리 학

교의 자랑인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 결석한 적이 두 번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이 공부에만 전념하니깐 다들 모범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소휘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랑 그런 면에서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시험기간이 아닐 때도 도서관에 자리가 꽉 차서 공부를 못하고 돌아올 때가 종종 있어요.

유창속 사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본인 의지가 없으면 수업 끝나고 바로 집에 가는 단조로운 생활을 하게 되죠. 남녀공학 대학교를 보면 반강제적으로라도 선후배 간의 활동이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하잖아요. 그러면 선후배 관계가 돈독해져서 사회에 나와서도 서로 의지가 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선후배 간의 교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대학생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견문도 넓히고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원아현 맞아요. 그게 여대의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방학 때 여행도 다니고 생활에서 작은 여유를 찾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유창속 사원 공대나 엔지니어 분야는 남성들이 많고 여성들이 적잖아요. 그런 곳에서 여성들이 입지를 세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키우고 계속 자기발전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한 것도 있고요. 제 사수이신 김영오 부장님도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마라’ ‘여자라고 현장에 안 나갈 생각 하지 마라’고 강조하시거든요. 저희 부장님은 이번에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되셨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세요. 저도 끊임없이 자기계발하는 부장님을 본받아 지금도 부족하지만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제 자신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소휘 저도 대학원 진학을 고민 중인데 선배님은 대학원 생활이 어떠셨어요?

유창속 사원 대학원 생활은 정말 힘들어요. 저는 식사를 하면서 박사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웃음). 환경 분야는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실험이 마음대로 안 되면 졸업이 연기될지 모르니깐 마음 졸이고 스트레스를

‘여대’ 출신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주도적인 리더십, 자립심, 독립심 ... 회사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받을 때가 종종 있었죠. 학부 때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여러 가지 종류를 배우는데 대학원은 한 우물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공부를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차유림 선배님의 생생한 조언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짧아 아쉬워요.

유창속 사원 사실 처음에 ‘선배가 쓴다’를 통해 여러분을 만난다고 했을 때 살짝 막막했어요. 제가 86년생이고 여러분들이 94년생이니깐 여덟 살 차이잖아요. ‘얘기는 잘 통할까?’ ‘내가 오는 걸 좋아하는 할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저를 환영해 줘서 좋았어요. 그리고 후배들의 밝고 좋은 기운 덕에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얻어가는 느낌이에요.

박소휘 선배들이 학교에 오셔서 대부분 일방적인 강연 방식이 많았는데, 이렇게 선배님과 가까이에서 대화할 기회를 접하니 선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와닿았어요. 또 선배님이 너무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후배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위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창속 사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대학생 시절이 가장 좋을 때인데 그걸 미처 모르고 여유 없이 뻘뻘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수업 결석해서 학점 C 받는다던 인생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황금 같은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연락해서 우리 또 만나요. 그때는 편한 언니, 동생 했으면 좋겠어요(웃음).



이화여대 앞 파스타 집에서 선후배들이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ART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의 영향력 있는 작가 24인의 작품이 한국을 찾았다.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에서 내년 1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인상주의 이후의 프랑스 현대미술을 소개한다.

Bonjour, La France!

유럽현대미술展



1



2



5



4

1 발레리 블랑 <Still Life with mirror> 2014, Pigment print on Enhanced Epson paper, 108×144cm

2 가엘 다브랭쉬 <It's not me, it's you> 2015, Oil on canvas, 200×160cm

3 로베르 콤파스 <LA FEMME CHAT> 2011, Acrylic on canvas, 120×120cm

4 로베르 콤파스 <Tu me regardes> 2015, Acrylic on canvas, 200×250cm

5 JR <Unframed Ferry Ellis Island in front of the Ellis Island Main Immigration Building reviewed by JR, U.S.A.> 125×187cm

6 알랭 뷔블렉스 <Plug-in city(2000) Dinner Time> 2005, Video, 10min 44sec



6

다 양 한 매 체 로 만 나 는 프 랑 스 현 대 미 술

프랑스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세계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한국과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유럽현대미술展은 회화, 영상, 설치,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프랑스 예술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전시는 크게 4개 섹션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색과 형상'에서는 짙은 색채가 돋보이는 자유로운 구상회화의 로베르 콤파스(Robert Combas), 생명력을 표현하는 세골렌 페로(Segolene Perrot), 유리의 변형과 변성을 이용한 표현을 구사하는 장미셸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 등의 작품을 소개한다. 이어 '교감'에서는 화려한 원색이 특징인 조각을 만들어 치유와 해방을 꿈꾸는 니키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과 자신의 인생을 작업으로 승화해 관람객과 교감하는 소피 칼(Sophie Calle),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몸짓을 화폭에 담은 가엘 다브랭쉬(Gael Davrinche) 등의 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아우라' 섹션은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듀오 피에르 앤 질(Pierre & Gilles), 서양 미술사에서 대표적인 다섯 미녀를 모델로 삼아 성형수술 과정을 공개하며 자신의 얼굴을 기꺼이 예술 도구로 이용하는 오를랑(Orlan), 보잘것없는 재료에 생명을 불어넣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리오넬 사바테(Lionel sabatte) 등의 작품으로 꾸며진다. 끝으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물을 이용해 끝이 없는 영화를 만든 듀오 에밀리 브로 앤 막심 마리옹(Emilie Brout & Maxime Marion)과 인터랙티브 영상 설치예술가 마구엘 슈발리에(Miguel Chevalier)가 장식한다.

프랑스 현대미술의 흐름을 알아보는 절호의 기회가 될 유럽현대미술展. 이번 전시는 내년 1월 17일까지 계속된다.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TEL 031-960-0180

2015.10.20~2016.1.17